

# NEXT 차이나! 베트남의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해외펀드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펀드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유망한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이어 '포스트 차이나'라 불리는 베트남에 주목해보자.



## 박상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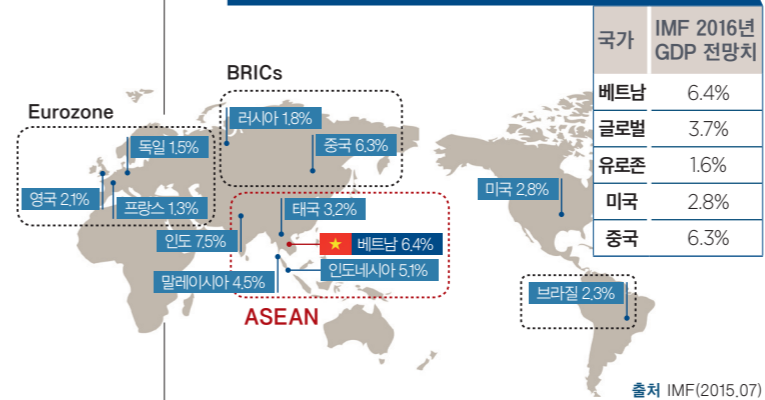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kebpsy@hanafn.com

- ▶ 경력  
2006년 외환은행 마포지점 PB팀장  
2009년 외환은행 선수촌WMC PB팀장  
2009년 상반기 외환은행 최우수 PB팀장 수상  
2013년 외환은행 PB사업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국내외 투자상품 분석 및 개발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월남으로 각인되어 있는 베트남.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월남전, 월맹, 베트남, 패망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버릴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가 아니다. 자정 시간에도 국제공항에는 연이어 비행기가 들어오고 도심에는 마천루가 즐비하며 곳곳에 BMW와 마쯔다가 달리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많은 재무 전문가로부터 신흥시장 중에서도 가장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 높은 국가로 추천되며 '2016년에 가장 주목 받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 대

## 2016년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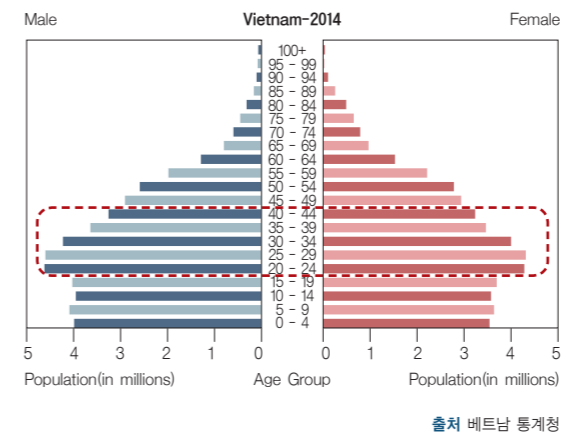


한 매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NEXT 차이나! POST 차이나'로 눈부시게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저성장 시대를 뚫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보자.

##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 시장의 매력

작년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베트남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 '베트남! 포스트 차이나 굳히기 - 올해 6%대 중반 성장 기대, 세계의 생산기지로 뜨고 있는 베트남!' 등 베트남에 관련된 매력적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보도되는 것은 그만큼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다시 베트남이 주목받는 것은 베트남이 새로운 이머징 시장의 대안이 되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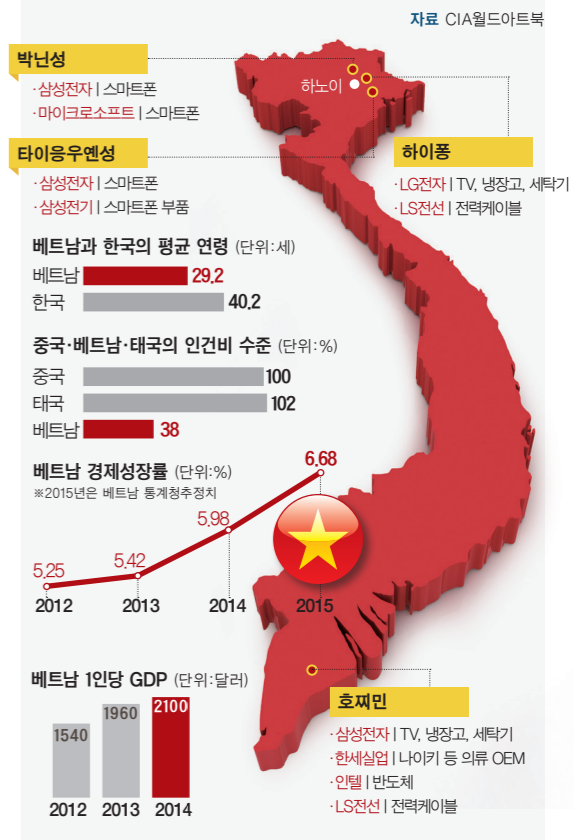
## 매력적인 인구 구조



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도 경제성장의 초창기인 2011년도에서 2012년까지는 한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 2011년 경제위기를 맞았고,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했다. 이후 현재 고성장에 이를 수 있었던 기틀을 닦았기에 어찌 보면 한국과 어느 정도 비슷한 발전경로를 밟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베트남이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높은 가능성을 갖게 해준 중요한 성장 원동력은 우선 단단한 성장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펀더멘털 중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베트남의 인적자본이다. 성장의 기본조건인 인구구조가 무엇보다도 탄탄하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15~29세의 젊은 인구구조가 두텁게 자리잡고 있어 양질의 노동력 시장을 구성해 성장의 탄탄한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죽

## 베트남의 주요 외국기업 공장



의 장막(bamboo curtain)을 치고 세계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중국이 오늘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힘이 바로 인적과위였듯이 베트남의 성장 원동력 역시 탄탄한 인적과위인 것이다.

두 번째 매력은 높은 성장잠재력에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장기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석유와 농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정치사회적으로 안정화된 국가로 자본시장 개혁과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소비자 물가 안정 및 금리가 하향안정화되어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고른 수출 분포를 바탕으로 견고한 수출증가율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국가통화인 동화도 다른 이머징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잠재요소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재는 물론 향후 베트남의 장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구조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베트남 경제에 지속적인 낙수효과를 제공해 베트남의 내수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계속 신규등록액 증가 및 실행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체결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결합되어 더욱 미래 베트남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매력이 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b>경제활동</b>									
GDP 성장률(%)	5.7	5.4	6.4	6.2	5.3	5.4	6.0	6.7	6.9
물가 상승률(%)	19.9	6.5	11.8	18.1	6.8	6.0	1.8	0.6	3.0
실업률(%)	4.7	4.6	4.3	3.6	3.2	3.6	2.0	2.1	2.1
<b>대외부문</b>									
경상수지(% GDP 대비)	-11.0	-6.5	-3.8	0.2	6.0	4.5	4.9	1.3	1.4
수출 증가율(%)	30.0	-10.0	26.6	33.3	18.3	15.4	13.6	9.0	10.0
VND/USD	17,483	18,479	19,498	21,034	20,840	21,095	21,388	22,500	23,250
환율변동(%)	9.2	5.7	5.5	7.9	-0.9	1.2	1.4	5.2	3.3

2011년 이후 경제지표 개선

자료 GSO, SBV, Bloomberg, 한국은행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20년간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했던 차이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베트남 시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유수의 대다수 기업이 계속해서 베트남을 제조업 기지화하며 공장을 이전 및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바탕으로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은 최대 수혜자로서 향후 비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베트남은 과거 중국의 고속 및 고도 성장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은 내부적인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고, 2016년에는 6.7~6.8%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할 전망이다.

또한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기에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로도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2015년 체결된 TPP 체결로 인해 12개국 가입국에 누적 원산지 규정을 일괄 적용키로 해 낮은 임금을 배경으로 부품생산 기지로 베트남의 매력이 증대, 수출의 증가를 견인하며, 경제성장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ummary

베트남은 탄탄한 인적, 물적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통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매력 넘치는 시장이자 투자처이다.

베트남 시장의 매력은?

- ① 내·외부적 무한 성장 잠재력 보유!
- ②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 ③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

베트남 주식시장 매력은?

- ① 주요 이머징 시장 대비 저평가
- ②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및 국영기업 민영화로 증시 활성화 예상
- ③ TPP 체결 및 MSCI EM지수 편입 예정에 따른 지속 상승 기대감
- ④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주식형펀드 비교세 제도 수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펀드로 주목받고 있음

베트남!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

넥스트 차이나로서 베트남 시장이 부각되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베트남의 부상이 단지 풍부한 노동력 요인에 유인되어 외국인 직접투자와 제조업 기지가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기에 일시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베트남은 과거의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유입요인을 최대한 활용, 자국의 산업발전과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역점을 다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내·외부적인 성장의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조합,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중단없는 성장스토리를 엮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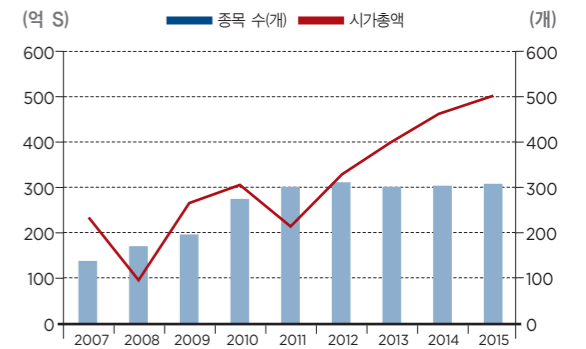
2016년부터 실시되는 신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베트남은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질적 개선에도 중점을 맞추고 있다. FDI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특성을 고려해 자국 내 현지기업 육성을 과제로 삼아 첨단기술 투자 및 기술이전 사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FDI기업의 기술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높은 공산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비재 산업의 육성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주식시장 전망

베트남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63조원으로 GDP 대비 30% 이하로 작은 편이지만, 2011년 이후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향후 2~3년간 500개 국영기업을 추가로 상장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올해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조치로 베트남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치민 증시 상장사의 기업실적이 2012년부터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증시의 주가지수 밸류에이션은 주요 이머징 시장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8년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TPP 체결에 대한 수혜, MSCI EM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바탕과 외부적인 수혜로 인해 매력이 더 확대되고 있어 베트남의 위상과 더불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29일부터 해외주식펀드 비교세 제도가 시

꾸준히 증가하는 시가총액



출처 Bloomberg, CEIC, 한국투자증권  
기준일 2015.12.25, 호치민거래소

작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펀드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손님들은 정기예금 금리가 2% 미만인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교세 펀드에 주목한다.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도 비교세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2008년 닥친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비교세 혜택을 받은 손님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겪은 손님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펀드 비교세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도 한편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외주식펀드 비교세의 실질적인 이점인 비교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펀드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말로 좋고 유망한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의 수요를 뒷받침했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이 멈추면서 글로벌 경제가 성장둔화 및 수요 부진으로 다시 한 번 힘겨운 호흡을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힘이 되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 시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베트남은 다른 어떤 이머징국가 보다도 중국을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저성장, 저수익 트렌드 기조인 글로벌 경제와 해외펀드 시장에서 베트남 펀드는 새로운 활력소 및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투자처인 동시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전문위원의 개인적 소견입니다.